

## “문화전통시장 브랜드로 키우고 직거래센터 적극 지원”

민선 6기 2년 설계  
**강진 원 강진군수**



최근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속에서도 강진군은 연일 활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 5월 개장한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 이어 지난 4일 문을 연 문화관광형시장 ‘강진오감통(五感通)’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10년 후, 20년 후 강진발전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서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 ▲감성여행 1번지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강진오감통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 군수는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강진 어업인의 성실함을 마케팅했다”면서 “스쳐가지만 했던 마량이 마량 놀토 수산시장이 들어서 이후 2~3배 이상 매출이 올랐고 머물고, 시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오감통·놀토수산시장 성과  
농어촌 민박 등 지역경제 활기  
머물고 가는 ‘감성여행 1번지’로**

지난 5월 23일 개장한 후 8주간 총 7만976명이 놀토 수산시장에 다녀갔고, 수산시장에 설치된 37개 부스 매출액만 4억6600만원을 넘어섰다. 비결은 ‘3최(最)·3무(無)’라는 ‘신뢰형 마케팅’였다. 3최는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을, 3무(無)는 ‘수입산, 비브리오, 바가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옆에 무명 가수촌을 만드는 역할상징 시도인 ‘강진 오감통’도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풍류와 흥을 좋아하는 국민의 정서에 맞춰 ‘음악’을 소재로 한 공간을 만드는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오감통은 무명 가수촌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만 주와 맛 산업을 연계해 개장 후 1주일만에 3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한정식 체험관과 먹거리 장터 등을 다녀갔다.

강 군수는 “앞으로 오감통은 반짝 이벤트 공간이 아닌 국내 무명가수와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색깔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올해 초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선언하고 ‘시골만의 독창성’을 살린 ‘푸소(FU-SO)’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푸소(FU-SO)는 필링 업·스트레스 오프(Feeling Up, Stress Off)의 약자로, 군이 운영하는 농박을 뜻한다.

각 읍·면별 특색있는 농·어업을 활용해 토하채취, 다슬기 잡기, 바지락 개기, 달걀 꾸러미 만들기, 보리 그슬림 체험 등 농촌만의 감성체험이 주목을 받았다.

푸소 체험은 ‘1000만 농촌관광객 시대’를 맞아 턱없이 부족한 지역내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 학생들이 시골에 머물며 특별한 추억과 감성을 갖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군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기존 농·어가의 개별 택배거래를 통합 관리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농·수산물 품질 관리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130개 품목, 120 농·어가가 참여하고 있다. 생산 품목이 다양해지는 가을부터 농·어업인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한 올해 매출목표를 10억원으로 정해놓았다.

이에 맞춰 군은 지난 4월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군은 연내에 직거래 농어업인 200호, 직거래사업단 20호, 품목별 생산단체 10호 등 23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4대 핵심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내 역동성 넘치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 국도 23호선 강진 군동~마량 도로건설 내년 상반기 착공

익산국토청 토지 보상설명회  
20.7km 구간 453억원 투입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도로건설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시행청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칠량면 장거리 현장사무실에서 보상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편입토지 소유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용지로 편입되는 60만8268㎡(2038필지) 토지의 보

상절차와 보상기준, 보상내용,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시행청은 이달 중순에 현장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금을 산정해 9월 중 개별고지를 거쳐 보상협의를 시작한다. 공사 관계자는 “보상 설명회를 통해 보상이 원만히 해결돼 강진~마량도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는 군동

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에 이르는 국도 23호선 20.7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453억원이 투입된다. 보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완공할 예정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고금대교, 신지~고금간 연륙교(2017년 완공), 완도~신지간 연륙교 등과 연계해 강진~완도간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물류와 관광기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 청자의 고장서 글솜씨 뽐내 보세요

내달 5일 강진 ‘청자백일장’

강진군은 제43회 강진 청자축제를 기념하는 행사로 ‘전국 청자백일장’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전국청자백일장’은 청자축제기간인 8월 5일 오후 1시부터 청자촌 청자박물관 앞뜰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전국 초·중·고·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상 1명에게는 전남도지사상과 부상이

주어지고, 최우수상 등 총 37명(대상포함)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전국 청자백일장 대회에 앞서 8월 4일에는 광주·전남 지역 소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26회 청자골사생대회’가 열린다. 풍경화와 상상화를 그리는 청자골사생대회는 최우수상 3명 등 총 27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전국 청자백일장·청자골 사생대회의 주제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심사결과 발표는 8월 10일 강진군청과 강진군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

장과 부상은 각 학교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4일까지 강진군청(www.gangjin.go.kr)이나 강진군도서관(www.gilib.go.kr)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방문하거나 FAX(061-430-3839)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61-430-3847)

한편 강진군은 이번 전국청자백일장과 청자골사생대회를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소재로 청자골 강진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자긍심과 창작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 영암 홍보관 인기몰이

무화과·기찬랜드 등 지역 특산물·관광지 큰 관심

힐링과 웰빙의 대명사  
남도관광 중심지 알려

지난 9~11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에서 영암 홍보관(사진)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렸다.

영암군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즙 시음과 각종 농산물을 전시 판매했다. 또한 여행담당 기자와 음식전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 인터뷰를 갖는 등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동평 군수는 “이번 박람회 참가로 영암을 남도관광의 중심지로 대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내외 관광관련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힐링·웰빙의 대표 브랜드인 영암관광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관광산업을 돕기 위해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이 공동 주최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매일”은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투기입니다.

지방지사 (061)	
광 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시내지국	
광 천	366-8375
남 광	222-9440
동 부	652-0175
동 명	264-2012
동 부	222-9054
문 흥	225-6001
백 운	267-4748
봉 선	673-4698
북광주	675-6530
상 무	525-3761
서광주	372-2352
송 하	369-0583
신 안	676-6805
양 산	512-1732
오 치	571-7658
웅 북	266-7601
우 동	522-7752
운 천	512-8116
팔 곡	371-9818
광 양	961-2339
중 흥	222-1896
진 월	224-6804
첨 단	673-1600
장 평	973-2900
치 평	224-8212
풍 암	376-6511
하 남	682-8112
화 정	959-1500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약구독 (062)220-0550